



**"우리 수능 끝났어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서 전남도 '우수'

6개 분야 평가 5개 분야 목표 달성...달성률 83.3%

전남도는 2018년 기준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규제개혁 분야 정부합동평가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6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전남은 5개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 목표 달성률이 83.3%에 이른다.  
 규제개혁평가는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별로 등수를 매겼으나 올해부터는 각 분야별 달성 실적으로 평가한다. 전남도의 이번 목표 달성률은 전국 최고 상위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군별 순회,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94회 운영 등을 통해 규제 수용률

을 높여왔다.  
 올해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113건, 국민생활 불편 민생규제 144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 규제 130건 등을 발굴하고 60여 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앞으로 2019년 시군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해 6개 시·군에 1800만원 포상금과 기관표창을 하고 등록규제 94건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계획이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多

총 63개 866명 위원 참여...중복 참여 645명 중 104명 2개 이상

이학제 전남도의원 "개선 시급...각계각층 다양하게 위촉 추진"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 위촉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학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63개로, 모

두 86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4명이 2개의 위원회에, 12명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2개 또는 3개 위원회에 529명이 중복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평 18명, 나주·완도 25

명, 고흥·영암 42명, 광양 45명 등이다.  
 도내 교육청의 위원회 중복 참여 수만 645명에 이른다.  
 이학제 의원은 "전라남도의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

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장의 임명 권한에 견제와 감시를 위한 것이자,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청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도민이 위원회에 다양하게 위촉돼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성은 기자

## 4인가족 김장비용 28만6천원

지난해 대비 8.7% 상승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올해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28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김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14일 내놨다.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는 3주 전과 비교해 각각 33.2%, 10.0% 하락한 반면,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생강과 갖은 각각 18.4%, 3.6% 상승했다.  
 올해 김장비용은 전년 대비 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료인 무·배추 가격이 생선상감소로 각각 48.6%, 35.8% 상승했으며, 양념채소인 깬마늘·고춧가루·대파 가격은 작황호조로 각각 18.7%, 18.2%,



8.1% 하락했다.  
 aT는 김장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배추·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aT 관계자는 "기울장마와 태풍 피해로 배추·무의 가격이 올라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김장시기를 앞두고 착황회복, 정부의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